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22일(음력11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505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 ◎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불교학 박사들 '생활苦' 크다

동국대만 165명 배출… 전공 살린 안정 기반 취약, 육성책 전무

'불교학 발전토대' 부양대책 절실

불교학 전공 박사들이 갈 곳이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동국대가 개교 이래 지금까지 배출한 불교학 전공 박사는 165명. 이 가운데 110여 명은 전공을 살린 안정적 기반을 갖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133명 중 교수로 채용된 이는 30여 명에 불과해 젊은 학자들이 교수가 되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박사취득자들은 강사로서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소속이 없다는 것. 소속이 없다보니 불안정해 연구에 몰두하기 어렵다.

동국대 강사 A씨는 "강사 생활에 지쳐 박사 취득자들 태반은 교수직 지원을 아예 포기했으며, 출판사를 차리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등 전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이 일자리가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는 동국대, 위덕대 등 4개 종립대 말고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영산대 김종명 교수는 "전국 350개 대학 철학과 교수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동양철학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80%가 유학 전공자며 불교전공자는 20%에 불과하다"며 "대학의 다수가 기독교계 학교인데다,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불교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철학과에서 뿌리내리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교수직에 대해 차선이라 할 수 있는 연구소 연구직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 불교학 전문연구소는 동국대 내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진각종 종학연구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등 몇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을 제외하면 각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연구직은 2~3개에 불과해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은 불교계로서도 큰 손실이다. 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올바른 불교 이해를 위해 힘써야 할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교학을 공부하려는 지망생들의 의욕마저 꺾어버려 불교학의 전반적인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 학자 양성에 훨씬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다. 두레연구원(원장 김진홍)의 경우 해외연구원을 2년마다 선발, 박사 수료시까지 월 600~1000달러를 지급한다. 신학 전공자가 주로 선발되지만, 전공의 제한은 없다. 이미 50명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에는 18명이 선발됐다.

개신교 인터넷 신문 <뉴스엔조이> 주재일 기자는 "박사 과정 학생들은 소속 교회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학위를 받고 나면 담임목사 아래에서 협동목사로 일하며 교회의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종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의 사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활용의 문제일 따름. 일회성 지원에 머물고 있는 불교계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만은 사실이다.

불교학 박사들의 진로 확대를 위해 △교양불교대학 활성화 △종단의 연구소 설립 및 연구프로젝트 개발 △대학 기존 연구소 인력 확충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교구본사 또는 대형 사찰이 중심이 돼 각 사찰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연구 분야를 집중 육성하거나, 종단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연구 분야 중심으로 연구원을 꾸리면 종단과 사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불교학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연구자가 부족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도 의미 있다.

불교대학 활성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조계종이 인가한 불교대학은 40여 곳. 인가 기준에 따르면 석사 이상자 4인 이상을 교수로 고용해야 하므로 160여명의 채용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 강좌 강사료가 월 50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불교대학은 많은 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의 활성화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야 말로 1석3조인셈. 다만 문제는 인가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는 C씨는 "인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사를 2년 단위 계약제로 고용한다면 강사의 경력이나 안정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 박익순 기자

"헌법 위반 직권남용 정장식 시장은 사퇴하라." 12월 15일 열린 포항시장 종교편향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전경들이 막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포항기관장 홀리클럽 폐쇄 결정

종교편향규탄대회 3만 불자 '정 시장 퇴진' 요구

15일 포항종합경기장서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경북지역 불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5일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범불교도 대회는 12월 9일까지 공개 사과하고 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하라는 포항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의 요구를 정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최된 것이다. 조계종 경북지역 본말사와 천태종 법화종 소속 신도들은 정장식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포항시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관련기사 9면

한편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면서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은 자진 폐쇄를 결의했다. 정장식 포항시장, 이상득 · 이병석 국회의원, 공원식 포항시의장 등 포항기관장 홀리클럽 회원들은 16일 오전 모임을 갖고, 종교편향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기관장 홀리클럽을 해체하고 평신도로 활동하자고 결의했다. 종편위는 17일 현재 정 시장의 사퇴 이외에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사퇴요구 10만 포항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문화복지연대 본격 활동

16일 창립선언식 가져

진각복지재단을 주축으로 새로운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결성된 '문화복지연대'가 12월 16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창립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복지연대는 우선 연대의 조직구성 및 홍보작업 등을 서두르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회원배가는 물론, 전국 주요 복지관에 풍경소리 게시판 보급과 법률적 자문 및 상담, 문화복지의 집 건립 등의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문화복지연대는 진각복지재단, 사단법인 풍경소리 등 50여개 문화 · 복지단체와 100여명의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법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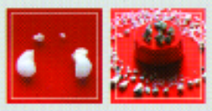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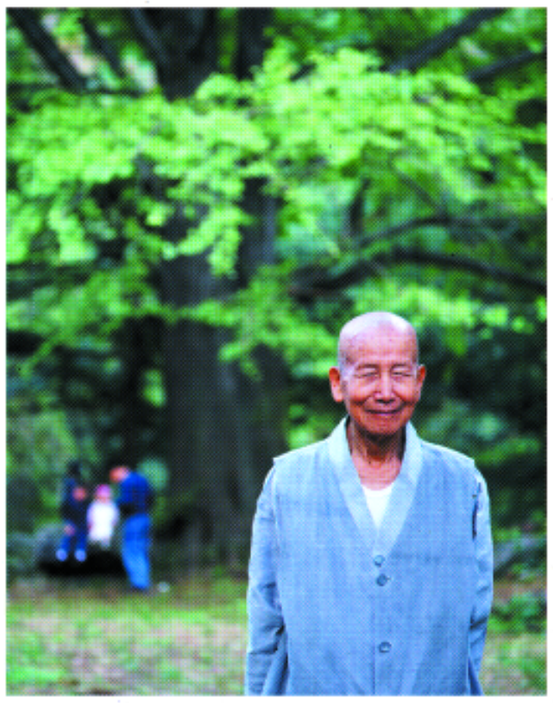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상세정보 32면 광고 참조


서옹대종사 사리친견 특별법회
기간 : 2004. 12. 30(목) – 2005. 3. 9(수)
장소 : 백양사 성보박물관

서옹대종사 추모특별전
기간 : 2004. 12. 30(목) –
장소 : 백양사 성보박물관



서옹당 상순 대종사 1주기 추모재
西翁堂 尙純 大宗師 一週忌 追慕齋

서옹당 상순 대종사께서
선정삼매에 들어 좌탈입망하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생사일여의 큰 경계를 내보이신 대종사의 큰 자취와 덕화를 추모하는
1주기 추모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대덕 스님들과 문도 스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12월 30일 목요일(음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 및 참사람 교육관(추모식)
● 법어 : 진제 큰스님(동화사, 해운정사 조실)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061-392-1502)
www.baekyangsa.org